

## 회 의 록

회의명		2023년도 제3차 대학평의원회				
일 시		2023. 6. 13.(화) 16:30 ~ 17:50				
장 소		대학본부 별관 1층 CNU Hall				
심의안건		[제4호] 대학평의원회 의장 호선 [제5호] 충남대학교 학칙 일부 개정 학칙(안) [제6호] 제20대 총장임용후보자 선출을 위한 대학 구성원 간 투표 반영 비율 결정 논의				
심의결과		[제4호] 000 의원 선출 [제5호] 원안 통과 [제6호] 직능단체별 TF 회의를 거쳐 대학평의원회 회의 재소집				
참 석 현 황	참석 대상자	22명	위임 내역	위임장 제출: 2명 이왕록, 김 담	참석자	참석자: 20명 최인호, 서연주, 노수림, 이병채, 김운용, 강석구, 김수일, 최호정, 노현주, 조성범, 김태섭, 김지수, 윤난희, 이재훈, 김필형, 최인용, 김채현, 안선민, 이유진, 전득수
	참석자	22명				
	불참자	0명	불참 내역			
주요 발언내용						
<div>■ (개회 선언 및 성원 보고) 재적위원 22명 중 위임 2명 포함 22명 참석.</div> <div>■ (전차회의록 검토 및 확인) 2023년 제2차 대학평의원회 심의 결과, 수정 없이 원안으로 확정.</div> <div>■ 의안 제4호</div> <div>○ 부의장(○○○): 제4호 대학평의원회 의장 호선 진행하겠음.</div> <div>○ 의원(○○○): ○○○ 의원 추천.</div> <div>○ 의원(○○○): ○○○ 의원 추천.</div> <div>○ 부의장(○○○): 추천된 ○○○ 의원, ○○○ 의원 중에서 호선으로 결정하겠음. 후보가 두 명인 관계로 투표를 진행하겠음. (투표용지 작성 및 무기명 비밀투표 실시) 투표 결과, ○○○ 의원 13표, ○○○ 의원 7표로 대학평의원회 의장으로 ○○○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언함.</div>						

- 의원(○○○): 학무회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닌지? 대학평의원회 규정에 호선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, 참석 평의원 2/3 이상 찬성으로 심의·의결한다고 되어 있는데, 호선도 2/3 이상 찬성의 정족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?
- 교무처장(○○○): 의장 호선은 대학평의원회 규정에 심의사항이 아님.
- 부의장(○○○): 호선은 심의사항으로 볼 수 없고, 심의·의결 정족수를 따라야 한다는 규정은 없음.
- 교무과장(○○○): 호선은 심의안건이 아니기 때문에 의결 정족수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.
- 의원(○○○): 호선은 구성원들이 어떠한 사람을 뽑는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의결사항이나 심의사항으로 보기에 어려움.
- 의원(○○○): 의장을 호선하는 부분도 중요한 안건인데, 참석 2/3 이상 찬성의 의결 정족수를 적용해야 한다고 봄.
- 의원(○○○): 의장 호선에 대해서 심의사항 또는 의결사항으로 판단한다면 ○○○ 의원이 향후 규정 개정을 요청해서 그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맞고, 현재 규정에서는 의장 호선은 심의 또는 심의·의결 사항이 아님.
- 부의장(○○○): 특별히 다른 의견이 없으면, 대학평의원회 의장은 ○○○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언함. 다음 안건부터는 의장이 진행하겠음.

#### ■ 의안 제5호

- 의장(○○○): 제5호 충남대학교 학칙 일부 개정 학칙(안) 심의하겠음.
- 교무과장(○○○): 회의 자료에 따라, 제5호 안건 제안 설명.
- 의장(○○○): 의안 충남대학교 학칙 일부 개정 학칙(안)에 대해 논의하겠음.
- 의원(○○○): “학생 희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속을 변경할 수 있으며”로 되어 있는데 소속은 그대로고, “전공을 표시 안 할 수 있음”이 맞음. 2023학년도 입학한 학생은 2023학년도 교육과정을 따르다가 졸업 시기에 전공을 지워버리겠다는 얘기인지?
- 교무처장(○○○): 국제학부는 입학 당시부터 전공이 지정될 수 없음. 학생들이 입학하면 전공 소속으로 합해버리는데, 이것을 풀어주겠다고 해석하면 됨. 교육과정의 변화가 발생하면 개설되지 않는 교과목들이 있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는 것임.
- 의원(○○○): 학과 안에서는 조정이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, 규정으로

이렇게 적어놓으면 학생들이 이 규정을 가지고 전공을 지워달라고 한다든가, 한국문화학 전공 학생이 국제학 전공으로 졸업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문구임.

- 교무처장(○○○): 국제학부 국제학 전공이든, 국제학부 한국문화학 전공이든 기존 전공으로 졸업할 수도 있고, 그냥 국제학부로도 졸업할 수 있게 학생에게 자율권을 준다는 의미임.
- 의장(○○○): “소속”을 “소속(전공명)”으로 변경하는 것이 어떤지?
- 교무처장(○○○): 추후 규정 개정이 필요할지 검토하겠음.
- 의원(○○○): 지금 심의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? “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”라고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, “전공명을 기재 안 할 수 있다”로 기재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?
- 교무과장(○○○): 회의자료 6쪽에 스마트시티건축공학과와 경우도 소속이라는 용어를 썼고, 이전 규정에도 모두 소속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지, 전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음. 국제학부 국제학 전공 학생이 국제학부 국제학 전공 또는 국제학부로 졸업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한국문화학 전공으로 졸업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님.
- 의장(○○○): 이의제기한 의견에 대해 해소됐는지?
- 의원(○○○): 해소된 것으로 받아들이겠음.
- 의장(○○○): 제5호 안건 충남대학교 일부 개정 학칙(안)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언함.

#### ■ 의안 제6호

- 의장(○○○): **제6호 제20대 총장임용후보자 선출을 위한 대학 구성원 간 투표 반영 비율 결정에 대해 논의하겠음.**
- 교무과장(○○○): 회의 자료에 따라, 제6호 안건 제안 설명.
- 부의장(○○○):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규정 전면적 재검토, 투표 구성 비율 논의 크게 2가지를 결정해야 함. 결정 사항별로 소위원회 2개를 둘 수도 있고, 1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2가지 모두를 결정하는 방법도 있음.
- 의원(○○○): 지난 선거 때는 총장임용추천위원회 규정 제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별도의 소위원회를 두고, 소위원회 2개로 구성한 것으로 보임. 현 규정에는 투표 반영 비율을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크게 바꿀 내용이 없어서, 소위원회 1개로 구성해서 논의하는 것 제안. 교육 공무원법 제24조제3항제2호 관련해서 개정된 사항만 반영하면 됨.

- 의장(○○○):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규정과 관련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, 소위원회뿐만 아니라 이전 선거 관련해서 10월부터 시작했던 직능 단체별 TF팀을 구성해서 결정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?
- 의원(○○○): 교육공무원 제24조제3항제2호 개정에 맞춰, “교원, 직원 및 학생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선정” 이기 때문에 각각 1/3씩 구분해서 총장임용추천위원회 구성하기를 제안.
- 의원(○○○): ○○○ 의원 의견에 동의함. 교육공무원법 개정에 맞게 총장임용 후보자 선정 규정도 전반적인 수정 작업이 필요. 특정 직능단체가 과반이 넘는 것에 대해서는 민주적인 관점에서 부적절하다고 생각함.
- 의장(○○○):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규정 및 총장임용추천위원회 구성 비율과 관련하여 합의된 적정비율을 도출해내려면 시간을 갖고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나가야 하는데, 직원, 학생 측에서 동의하는지?
- 의원(○○○): 교무처에서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규정 기본안을 짜서, 의견수렴을 요구하는 것이 어떨지 제안.
- 교무처장(○○○): 백서를 작성하는 기간을 고려하면, 평의원 구성이 도중에 바뀌는 학생 측에서는 들어올 수 있는 인원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.
- 의장(○○○): 이 안건에 대해서는 추가적 논의 필요. 직능별로 모여서 각각의 소주제들을 도출해내는 과정이 필요.
- 의원(○○○): 소위원회를 먼저 구성한 후, 의견이 나오면 규정 개정에 대한 건의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맞음.
- 의원(○○○):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규정 개정 후, 총장임용후보자선출위원회를 구성하고, 구성단위 참여 비율을 논의하는 것이 절차상 맞음.
- 의원(○○○): 소위원회를 먼저 구성하고, 첫 번째 안건으로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규정에 대해 논의해야 함.
- 교무처장(○○○): 8월에는 총장임용추천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정을 조금 서둘러야 함.
- 부의장(○○○): 각 구성원이 집단별로 바라보는 시각이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, 교무처에서 규정안을 만드는 것은 무리가 있음. 직능 단체별 소위원회 대표를 뽑고, 교무처에서는 간사를 하고,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기를 제안.
- 의장(○○○): 교무처에서 안을 만들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니, 그 시간 동안 30명이 아니라 작은 규모로, 직능별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할 것을 제안.
- 부의장(○○○): 교무처에서 전체 안을 만들어 의견을 받기에는 직능단체별

시각이 다르기 때문에, 각 구성원 대표들과 교무처가 함께 참여해서 규정 한 구절씩 검토하기를 제안.

- 교무과장(○○○): 규정 문구는 교무처에서 수정할 수 있지만, 문제는 위원회 구성 비율임. 직능단체별로 구성 비율에 대한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, 교무처에서 만들 수 있는 사안이 아님. 예전처럼 대학평의원회에서 1소위원회를 만들어서 규정 관련하여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사안임. 다음으로는 투표 반영 비율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정해야 함. 내년에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어서 2019년 선례를 고려할 때, 11월 말까지는 총장 선거가 완료되어야 함. 교무과에서 행정 지원은 할 수 있으나, 주도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사안은 아님.
- 의장(○○○): 직능단체별로 만나서 추천위원회 구성 비율을 논의해야 함.
- 의원(○○○): 타 대학의 사례를 조사하고 공유해서 논의해야 함.
- 교무처장(○○○): 총장임용추천위원회 구성 비율은 투표 구성 비율과는 전혀 다름. 교무처에서 다른 대학 사례를 조사해서 공유하겠음.
- 의장(○○○): 제6호 안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논의하는 것으로 결정함.

#### ■ 기타논의사항

- 의원(○○○): 투표반영비율과 총장임용추천위원회 구성 비율이 연동하는 사안으로 생각해서 위원회 구성 비율 조정을 요청하는지?
- 의원(○○○): 별도로 요청하는 것임.

#### ■ 폐회